

<2017년 12월 8일 금요기도회 말씀>

<사랑>은 '영원한 구원'이다

삼위의 사랑을 받고 삼위께 사랑을 드리는 자만
삼위와 일체 되어 영원하다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2017년 연말은 모두 <말씀과 성령>에 푹 빠져서
성령과 주와 함께 보내라고,
계속해서 <말씀의 양식>을 먹여 주고 있습니다.

이 말씀을 가지고 <교회 자체 부흥집회>를 계속해 나가기 바랍니다.

◎ 오늘은 '영원한 사랑'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
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.

이를 깨닫고 행하면, 인생 성공하게 됩니다.

- ◆ 성삼위가 전심으로 사랑해 줘도
자기가 그만큼 못 느끼고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.
 - 첫째, <세상>을 더 사랑해서 그러하고
 - 둘째, <다른 자>를 사랑해서 그러하고
 - 셋째, 자기가 삼위를 <같이>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합니다.

- ◆ 세상을 더 사랑하면,
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사랑해 줘도
조금밖에 못 느끼거나, 아예 모릅니다.

그러다 추운 겨울이 오듯 환난이 오면, 그제야 깨닫고 압니다.

- ◆ 자기가 ‘같이’ 성삼위를 사랑하면,
바로 ‘삼위의 큰 사랑’ 을 느끼고 알게 됩니다.

- ◆ 삼위가 자기를 전심으로 사랑해 줘도 모르면,
육도 영도 ‘변화’ 가 잘 안 됩니다.

- ◆ 전심으로 삼위를 사랑하고 파고들어야 압니다.

- ◆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주도 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
생활 속에서 늘 도우셨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.

- ◆ 육에 속한 자, 자기 생각에 박혀 사는 자,
이성과 동성에 속해 사는 자는
거기에 자기 생각이 98% 이상 빠져 있으니,
삼위와 주가 늘 돕고 사랑해 줘도 모르고 삽니다.

이런 자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,
결국 그 마음과 생각이 ‘정상’에서 벗어나서
정신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, 다치기도 하고,
자기 희망도 못 이루게 됩니다.

<세상>을 더 사랑하고, <이성과 동성>을 더 사랑한 만큼
결국 자기가 ‘사망의 고통’을 받게 됩니다.

- ◆ 성령님께서 <자연 계시>를 보여 주시며 말씀하시기를

“<그 차원>에는

<그 차원에 해당되는 형상과 모양>대로만 존재한다.

<천국>도, <세상>도 그러하다.

이것이 <자원의 법>이다.

이 <자원의 법>은 영원하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‘<그 차원>에는

<그 차원에 해당되는 형상과 모양>대로만 존재한다.’ 함은,

마치 <여자>에게는 ‘여자에게 해당되는 구조와 모양’만 있고,

<남자>에게는 ‘남자에게 해당되는 구조와 모양’만 있는

격입니다.

이같이 <지옥>에는 ‘지옥에 해당되는 고통’만 있고,

<천국>에는 ‘천국에 속한 기쁨과 사랑과 축복’만 있습니다.

<만사>가 그러합니다.

- ◆ <삼위가 주를 통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>을 모르고 살면,
개인이든, 가정이든, 민족이든

때가 되면 그 ‘행위’ 대로 대하시고 심판할 것은 심판하십니다.

- ◆ <삼위를 사랑할 때>는 거짓 없이 해야 됩니다.

그래야 ‘삼위와 사랑으로 일체’ 되고,

때를 안 놓치고 육도 영도 제대로 ‘사랑’을 이룹니다.

또한 <하나님>과 <성령님>은 깨끗하시니,

<자기>도 절대 깨끗해야 ‘사랑으로 일체’ 됩니다.

<중요 부분> ‘◆’ 표시한 문장 중요

◎ 중요한 말씀을 하니, 잘 듣기 바랍니다.

- ◆ 아무리 <자기 사랑>을 세상과 이성에게 다 주며 불같이 사랑해도
상대는 ‘사람’인 고로
 -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고,
 - 또 때가 지나면 늙으니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.

<불완전한 사랑>입니다.

- ◆ <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사랑>만이
자기 육과 영을 구원하여 육 평생, 영혼 영원까지 갑니다.

이 사랑이 <완전한 사랑, 영원한 사랑>입니다.

- ◆ 이 <영원한 사랑>을 해 쥐도
 - 자기가 세상이나 이성, 동성에 빠져 그 사랑을 못 받고,
 - 혹은 받아도 자기가 같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 사랑을 못 이루면,
 - 결국 그 사랑은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.

- ◆ 아무리 <아름답고 좋은 소나무>라도 ‘베임’을 받으면,
거기서 그 운명이 끝납니다. <인생>도 그러합니다.

- ◆ 아무리 <부모 사랑>, <세상 육의 사랑>이 크다 해도
그 사랑으로는 ‘영 구원’을 못해 줍니다.

고로 ‘일순간의 사랑’에 불과합니다.

- ◆ <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사랑>만이
‘육과 영을 구원하는 근본 된 사랑’입니다.

고로 그 사랑을 이루면,

구원을 이루어 영원히 그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.

- ◆ <사랑>은 ‘영원한 구원’입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원히 사랑해 주시려고

<천지 만물>을 창조하시고, <인간의 육과 영>을 창조하셨습니다.

- ◆ <사랑>을 이루면, 만사형통입니다.

<사랑>이 깨지면, ‘육의 것’도 ‘영원한 것’도 다 깨집니다.

- ◆ <이성 사랑, 물질 사랑, 돈 사랑, 환경 사랑, 명예 사랑>은
‘잠깐’입니다.

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잠깐뿐인 <육의 것>을 우리에게 주시며
우리가 누리게 하셨을까요?

- 삼위와 주와 사랑하며 ‘영원한 것’을 위해 쓰고,

- 그리함으로 ‘영원한 것’을 빛나게 하라고 준 것입니다.

◆ 하나님과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“<육에 속한 것>만 하면,

<마음·정신·생각의 만족>이 없고 <네 영혼의 만족>도 없다.

마치 사랑하는 ‘애인’을 잃고

그 대신 ‘강아지’를 사랑하며 만족하는 것과 같아서

<근본적인 사랑의 만족>이 안 된다.” 하셨습니다.

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는

- 밤낮 인생들을 쳐다보며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,

-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곳을 주시고,

- 생활 속에서 늘 사랑해 주십니다.

하나님도 주도 말씀하기를

“이를 깨닫고, 늘 삼위와 주와 <대화>하여라.

남녀가 서로 사랑하듯 삼위와 주를 ‘사랑의 대상’으로 삼고,

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<사랑>하며 살아라.

내가 삼위를 애인같이 대하고 살면, <삼위의 애인>이 된 것이다.

<삼위의 사랑의 대상, 신부>가 되면, 다 해 준다.” 하셨습니다.

◆ 늘 삼위와 주를 부르고, 찾고, 간구하고, 대화하기 바랍니다.

간구할 때는 <자기에게 속한 것>뿐 아니라,

<형제들>을 위해서도 간구하기 바랍니다.

합당하면, 때가 되면 질서 있게 해 주십니다.

- ◆ 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도우신 것을 생각해 보면, 감사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.

그러나 <뇌>는 그때가 지나면 잊으니,
생각해야! 다시 기억나고 알게 됩니다.

다시 생각났으면,
‘감사의 용광로가 되어 뜨겁게 감사하기’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삼위일체>는 ‘사랑의 신’ 이시라

- ‘사랑’으로 대해야 최고로 크게 반응을 하십니다.
- ‘사랑’으로 대해야 사랑으로 일체 됩니다.
- ‘사랑’으로 일체 되면,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해 주십니다.

- ◆ <불>과 <불>은 같은 질이니, 금방 통합니다.

<사랑의 본체이신 성삼위의 사랑>은 ‘뜨거운 태양’과 같습니다.

<삼위의 사랑>이 ‘뜨거운 태양’과 같으니,
자기도 ‘불’ 같이 뜨겁게 삼위를 사랑하면, 바로 통합니다.

- ◆ 삼위는 ‘태양 같은 사랑’을 모두에게 주십니다.

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도 모르면,
마치 매일 태양을 보면서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자와 같습니다.

모르니, 삼위와 ‘사랑’으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.

- ◆ <하나님의 사랑>은 다음과 같이 세상에 나타납니다.

하나님은 ‘자신이 사랑하는 자’를 세상에 보내시고,
그를 통해 사랑을 해 주십니다.

곧 <한 사람의 육신>을 쓰고 나타나시어

-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,
- 그를 통해 도우시고,
- 그를 통해 개인과 민족과 세계의 재앙과 전쟁도 막으시고,
- 그를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<1000년 혼인 잔치 역사>를 펴시고,
- 그를 통해 <하나님의 창조 목적, 휴거>를 이루시어
-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 <사랑 세계>를 세우십니다.

이것이 <그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>입니다.

- ◆ <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는 자>는
‘시들어서 죽어 가는 나무’와 같이 됩니다.

<그 사랑을 떠나서 간 곳>은 ‘사랑의 물줄기가 없는 광야’요,
‘사막’입니다.

- ◆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<사랑하는 한 사람>을 세상에 보내시고,
그를 통해 <사랑의 뜻>을 이루시고 <시대의 뜻>을 펴 가십니다.

그 뜻은 ‘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’입니다.

- ◆ 하나님께서 ‘조건 없는 사랑’을 주셨는데
인간이 감사하지 않고 사랑해 드리지 않으면,

하나님은 ‘짝사랑하는 입장’ 이 되십니다.

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면,
자기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러야 됩니다.

이것이 ‘서로 사랑을 맺는 것’ 입니다.

이것이 ‘삼위와 사랑으로 일체 되어 사는 것’ 입니다.

- ◆ <정자>만 가지고서는 ‘생명의 역사’ 가 일어나지 않습니다.
<난자>도 있어야 서로 일체 되어 ‘생명의 역사’ 일어납니다.

이와 같이 정자와 같은 <삼위의 사랑>만 가지고서는
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.

난자와 같은 <인간의 사랑>,
곧 <신부 입장의 사랑>을 삼위와 주께 드러야 사랑으로 일체 됩니다.

그래야 <인간의 육>도 ‘삼위의 사랑의 대상체’ 가 되고,
<영>도 ‘삼위의 사랑의 대상체, 신부의 영’ 으로 형성됩니다.

<중요 부분> ‘◆’ 표시한 문장 중요

◎ 또 중요한 말씀을 하니, 잘 듣기 바랍니다.

- ◆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
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사랑의 뜻을 이루는 자는
그 <영>이 ‘영원한 구원과 휴거’ 를 이룹니다.
- ◆ 그러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도
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‘육’ 에서 끝나고 맙니다.

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만 하고 <자기 사랑>은 주지 않으니,
하나님과 사랑으로 일체 되지 않아서 ‘사랑의 뜻’을 못 이루고
때가 되면 영원히 끝나게 됩니다.

◆ <인간끼리의 사랑>은 ‘육의 사랑’입니다.

고로 ‘영혼’을 소생시키지 못합니다.

<육>이 죽으면 끝나고, 그 <영>은 ‘사망’으로 가게 됩니다.
오히려 ‘육의 사랑’으로 인해 더 ‘사망’으로 가게 됩니다.

◆ <삼위와의 사랑>은 ‘육과 영의 사랑’입니다.

고로 <삼위의 사랑을 받은 자>가 삼위를 사랑하면,
사랑의 뜻을 이루어 ‘영혼’이 구원과 휴거를 이루게 됩니다.

고로 ‘영원히 남아지는 사랑’이 됩니다.

<영>이 구원받고 휴거되면,
황금성에서 영원히 삼위와 사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.

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가 아무리 사랑을 해 줘도
자기가 ‘같이’ 사랑을 안 하면, <자기 주관권>에서 끝납니다.

고로 <영원히 존재할 자>가 ‘하나의 흠’으로 끝나게 됩니다.

그런 자들은 <육의 삶>이 끝나면,
그 <영>이 ‘사망’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.

<육신의 핵>인 ‘생각’이 ‘혼과 영’과 일체 되어 가니,
실상 <자기 육체>가 ‘지옥’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.

고로 마치 ‘육신이 지옥에 간 것과 같은 고통’을 영원히 느낍니다.

- ◆ <극>과 <극>의 세계입니다.

<남극>이 아니면 <북극>에 가 있듯,
<사랑의 세계>가 아니면 <미움의 세계>로 갑니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는

이미 다 사랑해 주셨기에 후회를 안 하십니다.

고로 ‘자기를 반대하는 자’를 뇌에서 지우듯,
영원한 사랑을 저버리고 간 자들을 영원히 뇌에서 지우십니다.

뇌에서 지웠으니, 영원히 생각하지 않으십니다.

- ◆ 대신 <그 옆에 있던 다른 자>가

하나님이 투자한 사랑을 받아 열매를 맺으니,
그를 통해 크게 ‘사랑’을 얻고 만족하십니다.

- ◆ 가령 주인이 <한 나무>에 퇴비를 주고 투자하며 수고했다 합시다.
그런데 <그 나무>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.

대신 <그 옆에 있던 나무>가
그 퇴비를 먹고 크게 자라서 열매를 열었습니다.

주인은 <그 나무>를 통해 크게 얻고 만족하면 됩니다.

- ◆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.

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해 줘어도
<그 사랑을 받은 자>가 ‘같이’ 사랑하지 않으면,
큰 과일을 기대했던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.

그때는 <그 나무>를 베다 제분하여 ‘더 좋은 나무’에 퇴비하듯,
하나님은 ‘사랑을 온전히 주는 자’에게 투자하십니다.

◆ <월명동 야심작>을 쌓을 때입니다.

한번은 야심작의 돌이 무너지면서 <세운 돌>이 깨졌습니다.

깨진 돌이 너무 아까워서 <깨진 돌>은 일반 장소에 옮겨 세우고,
일반 장소에 있던 <호피석>을 가져다 야심작에 세웠습니다.

이 호피석은 ‘야심작을 다 쌓고 나서 들어온 돌’이었습니다.

돌이 좋았는데 <야심작에 이미 세운 돌>을 빼내고 쌓으면 위험하니,
야심작에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.

그래서 일반 장소에 세워 뒀었습니다.

그런데 야심작이 무너지면서 돌이 깨져서

<깨진 돌>을 대신하여 이 <호피석>을 가져다 쌓게 되었습니다.

이 호피석 외에도

야심작 공사가 끝나고 ‘크고 좋은 돌들’이 많이 들어왔는데,
야심작에는 다시 쌓을 수 없어서 정말 아깝다고 했습니다.

그래서 다른 장소에 임시로 쌓아 두고는

‘이 돌들을 어디에 쓰지?’ 했었는데, 그때 야심작이 무너져서
<나중에 들어온 크고 좋은 돌들>을 다 가져다 쌓았습니다.

결국 마지막 여섯 번째에는 <최고 좋은 작품 돌>까지 총동원하여
<하나님의 구상>대로 삼위의 속이 시원하게 쌓았습니다.

<하나님의 구상>대로 됐으니,

그제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기뻐하셨습니다!

- ◆ <야심작이 무너지기 전>에는 그 자리에 ‘일반 돌’ 을 세웠습니다.

그런데 돌이 넘어지면서 거의 깨지게 되어,
그때 ‘더 좋은 돌들’ 로 바뀌서 쌓았습니다.

이같이 세운 돌이 넘어지고 깨지면

‘미리 예비한 더 좋은 돌’ 을 세우듯,

섭리사에 있다가 이성이나 세상으로 넘어져서 나가면

‘그보다 더 크고 좋은 자, 예비한 자’ 를 세우십니다.

- ◆ <여섯 번째 야심작을 다 쌓고 나서 들어온 좋은 돌들>은
하나님께서 “야심작만 쳐다보지 말고 또 작품을 만들자.” 하시어
 - ‘왕관 형상 기도동산’ 을 만드는 데 쓰고,
 - ‘하나님 상징 폭포’ 를 만드는 데 쓰고,
 - ‘연회장 신부 형상 폭포’ 를 만드는 데 귀히 썼습니다.

- ◆ <영상, 또는 사진>

<야심작>은 ‘정면’ 으로 보면, 길이가 **240m**입니다.

<잔디성전 제1폭포수 현판석>에서

<호수 옆 하나님 상징 폭포>까지 입니다. ‘**한 의자**’ 입니다.

하나님이 구상하신 위치를 깨닫고,

호수 옆 조경을 헐고 야심작과 연결하여 다시 쌓았습니다.

고로 <제1폭포수 현판석>부터 <호수 옆 하나님 상징 폭포>까지
240m의 길이 전체를 ‘야심작 보좌’ 로 봐야 합니다.

- ◆ 야심작 외에 다른 곳들은 <백보좌 앞의 보물들>과 같습니다.

기도동산 왕관 작품, 병풍 돌 조경, 성자바위와 각종 바위 작품들,

신부 형상의 연회장 걸작과 신부 형상 폭포 등입니다.

약수샘 쪽의 돌 조경 작품도 ‘한 폭의 병풍’ 입니다. <끝>

<잠시 쉬었다가>

- ◎ 이와 같이 <이미 세운 것>이 기대에 어긋나거나 무너지면,
하나님은 <더 좋은 것>을 예비하여 구상대로 실행하십니다.

<하나님의 자연성전>도 그러하고, <인생>도 그러하고,
<하나님의 역사>도 그러하고, <성전>도 그러합니다.

◆ <신약> 때 ‘이스라엘 민족’ 이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원대로 못 하고 기대에 어긋나니
<신약 복음>이 이웃 나라 ‘로마’ 로 옮겨졌습니다.

그곳에 ‘교황청’ 도 세우고 ‘아름다운 성전들’ 도 세우며
찬란하게 <신약역사>를 펴 나갔습니다.

<예루살렘 성전>은 ‘사탄을 상징하는 구교’ 에 뺏겼으나,
로마로 옮겨진 <신약 복음>은 뺏기지 않고 세계 각 나라로 전해졌고,
각 나라에 ‘신약의 성전들’ 을 세우며 역사를 펴 나갔습니다.

◆ <예루살렘 성전>은 ‘옛것’ 이고,

<신약의 성전들>은 ‘새것’ 입니다.

그 차이는 ‘소형 자동차’ 와 ‘비행기’ 같이 큼니다.

◆ 이스라엘 민족이 못 하니,

하나님은 성령과 성자와 함께 뜻을 옮기시고

만 배, 백만 배 ‘더 좋은 것’ 을 세워서 하셨습니다.

이와 같이 하나님은 <새 시대, 새 역사>에서도
1000년 동안 이렇게 역사해 가십니다.

- ◆ <자연성전>도 그러합니다.

하나님은 <신약의 성전>과는 아예 ‘구상’ 을 달리하여,
<하나님의 궁, 자연성전>을 건축하셨습니다.

<구시대에서 못 한 것>을 ‘새 역사’ 에서 하셨습니다.

<구시대 기성>에서 못 하니,
하나님은 성령과 성자와 함께
<아예 기성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성전>을 구상하시고
수십 년간 건축하여 1000년 동안 쓰게 하셨습니다.

- ◆ <한국 서울의 한 성전>을 살 때도
하나님은 ‘아예 비교도 안 되는 곳’ 을 예비하고 주셨습니다.

이 교회는 ‘전세살이’ 를 하고 있었습니다.

그런데 그 위층에 ‘사탄을 상징하는 이단 교회’ 가
우리 몰래 들어왔습니다.

건물 주인이 약속을 어기고 이단 교회에게 전세를 준 것입니다.

이들은 섭리사를 방해하고,
섭리사의 젊은 자들을 빼 가려고 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.

이들은 14만 4천 무리를 외치며, 기성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입니다.

이에 성령과 주는 즉시 그곳을 내주고 나오라고 했습니다.

성령께서 “위치가 좀 멀어도 성전을 빨리 찾아보아라.” 하시어 인터넷으로도 찾고, 직접 다니면서도 찾았습니다.

결국 <하나님과 성령께서 예비하신 곳>을 찾게 되었습니다.

이곳은 <기성 교회 성전>이었습니다.

- ◆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성전을 먼저 계약해서 우리가 못 사게 되었습니다.

그래서 그 교회 목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,
먼저 계약했던 사람에게 안 팔고 우리에게 팔겠다고 했습니다.

그 교회 목사는 ‘신령한 계시를 받는 자’ 였습니다.
기도하여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, 우리에게 팔겠다고 했습니다.

하나님과 성령께서 상황을 틀어 그 목사에게 계시를 주시고,
그 건물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.

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신부들을 사랑한다는 징표>입니다.

- ◆ 이 교회는 <귀엽고 예쁘고 아름다운 사랑 교회, 신부 교회>입니다.
주변에 ‘큰 산’ 이 끼 있어서 환경도 좋습니다.

- ◆ 또 이곳은 이전에 있었던 전세 건물과는
아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.

마치 ‘소돔 땅과 가나안 땅의 거리’ 와 같이 그 거리가 멍니다.

<이단 교회>는 ‘우리’ 를 보고 왔는데,
<우리>가 거기서 나오니 ‘그 야비한 짓’ 도 깨지게 되었습니다.

소돔 땅이 멸망하기 전에

아브라함이 간구하여 조카 롯이 그곳을 내주고 나오듯 우리가 나오니,
그들의 계획은 허사가 됐습니다.

- ◆ <그 교회>를 사면서 그 교회 목사에게 물어보니,
성도들을 모으고 교회를 짓기까지 3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.

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맞으려고
오랫동안 외국의 아름다운 성전들을 보러 다녔고,
그 후 외국 자재들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해
2008년에 완공했습니다.

예수님을 맞아야 하니,
‘최고의 예술’로 예쁘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
‘그 면의 최고 설계사’를 통해 지었다고 했습니다.
그 교회를 완공한 해에
선생은 시대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.

- ◆ 성자가 가시면서
“<너에게 주려고 예비해 놓은 것들>을 ‘때’가 되면 줄 테니
기도하며 기다려라.” 하셔서
‘무엇일까?’ 하며 계속 기도했습니다.

그때 남녀가 결혼하면 ‘집’이 필요하듯이,
이제 섭리사도 휴거됐으니 ‘우리 교회’가 꼭 필요하다고 하며
이제 각 교회가 ‘전세살이’를 벗어나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.

그때 기도하니,
성령께서 “지금은 <교회를 준비할 때>다.” 하셨습니다.

항상 ‘서울은 비싼데 언제 교회를 장만하지?’ 했었는데,

성령님이 말씀하시어 더욱 기도하며 교회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.

기도하니 결국 <하나님께서 성령과 성자와 함께 예비하신 교회>가 이곳임을 확실히 알고, 얻게 되었습니다.

- ◆ 하나님은 ‘의인들’ 이 잘되게 ‘악한 자들’ 을 쓰기도 하십니다.

이전 장소는 ‘이단’ 에게 쫓겨 내주고 나왔지만,

결국 <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교회>를 찾고 얻게 되었습니다.

항상 <화목>과 <평화>로 해야 됩니다.

- ◆ 우리는 그같이 교회를 건축할 수 없으니,
하나님은 ‘그 면의 노련한 사명자들’ 을 통해
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.

<구시대>도 <새 시대>도

모두 ‘하나님의 것’ 이고 ‘성령님의 것’ 입니다.

고로 때마다 합당하게 질서 있게 쓰십니다.

- ◆ 이 교회가 ‘이단’ 으로 인해 어려움이 없었다면,
지금도 ‘넓은 전세 건물’ 에 있었을 것입니다.

결국 <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좋은 것>을 주셨습니다.

지금은 <새 성전>을 얻고,

모두 ‘보화 덩이’ 같이 여기고 관리하며 좋아합니다.

- ◆ 하나님은 이 성전을 두고 말씀하시기를

“나 여호와가 성령과 성자와 함께 구상하고,

정말 정성스럽게 건축하고 예비한 <신부 형상 교회>다.

또한 <내 보낸 자>가 시대 십자가를 지며
사랑과 눈물로 기도한 ‘숫자’가 있는데,
<그 기도의 숫자를 기념해서 준 교회>로서
<시대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여 건축한 교회>다.”

하셨습니다.

고로 이 사연은 ‘섭리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’입니다.

모두 이 뜻과 사연을 알고,
<시대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>을 생각하며 사용하기 바랍니다.

- ◆ <뜻과 사연>을 모르고 쓰면,
아무런 ‘의미’도 ‘은혜’도 없습니다.

<뜻과 사연>은 오직 ‘그’만 아니,
모두 알고 삼위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고 사랑하라고
이 말씀을 모두에게 전해 줍니다.

그 교회에 가게 되면,
나머지 사연들과 구체적인 것들을 꼭 보고 듣기 바랍니다.

- ◆ 이 사연을 두고
하나님과 성령께서 <노래 가사>도 주시고 <곡>도 주시며
1000년 동안 증거하며 부르게 하셨습니다.
- ◆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“<당세>뿐 아니라 <후대>까지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면,

이러한 <기적과 표적의 역사>가 계속 일어난다.

하나님과 나 성령과 성자를 늘 부르고 사연을 이야기하여라.”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이 교회를 사기 전에, <지방의 한 도시>에서 먼저 건물을 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.

그곳에 ‘한 건물’이 경매로 나와서
그 건물을 사려고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데,
그 순간 컴퓨터가 고장 나서 못 하게 되었습니다.

하나님이 그 건물을 못 사게 상황을 트신 것입니다.

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모르니,
처음에는 선생도, 그 교회 교인들도 모두 실망했습니다.

- ◆ 이때 ‘앞에 말했던 서울의 한 교회’가 이단들의 소행으로 장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

하나님은 “먼저 서울 교회부터 하자. 기도해라.” 하시어 <서울의 그 교회>를 먼저 샀습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<더 좋은 데>로 옮기신 것입니다.

- ◆ 서울의 그 교회를 산 후에 다시 <입찰을 못 했던 지방 교회>에서 보고가 왔습니다.

<그때 경매로 그 건물을 낙찰 받은 사람>이 자기가 낙찰 받은 값에 그 건물을 우리에게 판다고 했습니다.

이에 전 교인들이 좋아서 사겠다고 했습니다.
그때 하나님도 성령님도 “뜻이 아니다.” 하셨습니다.
그래서 절대 못 사게 했습니다.

- ◆ <하나님의 뜻>이 아니면,
하나님도 성령님도 강하게 상황을 트십니다.
이는 ‘더 좋은 것’ 을 주시려 함입니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함께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.

- ◆ <그 지방 교회>는 ‘경매로 나왔던 건물’ 은 못 사고,
할 수 없이 두 교회가 합병 하여 일단 ‘좁은 데’ 있게 되었습니다.

합병 한 교회 중의 한 교회도 그 옆에 <이단 교회>가 있어서
그곳에서 철수하고 하나로 합병 한 것입니다.

가는 곳마다 ‘이단의 그늘’ 이 있으나,
싸우지 말고 ‘순리’ 로 행하면 됩니다.

- ◆ 두 교회가 하나로 합쳐지니 좁다고 하며
선생에게 계속 편지가 왔습니다.

그래서 1부, 2부 예배를 드리더라도
조금 더 기다리면서 또 찾아보라고 했습니다.

결국 삼위도 주도 함께하니,

<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교회 건물>을 찾게 되었습니다.

그곳은 <신도시 지역에 있는 교회 건물>인데,
성령님께서 “그 건물이다!” 하시어 즉시 계약하라고 했습니다.

- ◆ 후에 <처음에 경매로 나와서 사려고 했던 건물>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.

건물 한쪽에 균열이 생겨서 사용도 못 하고,
공사를 해야 사용 허가가 난다고 하여
20억을 들여 고치고 있다고 했습니다.

그래서 <그 건물을 낙찰 받은 사람>이
<그 건물을 판 사람>에게 소송을 걸어
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.

- ◆ <그 건물을 낙찰 받은 사람>이
건물을 구입한 후에 건물에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,
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.

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멋지고 좋았기 때문입니다.

- ◆ 처음에 <그 건물을 낙찰 받은 사람>이 우리에게 연락해서
자기가 낙찰 받은 값으로 그 건물을 주겠다고 했을 때는
모두 “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!” 하며 좋아했습니다.

그러나 이것은 <인간의 생각>이지 <하나님의 뜻>은 아니었습니다.
그래서 성령님께 물었을 때, 성령님은 못 사게 하셨습니다.

하나님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니,
이번에는 <일반 건물>이 아니라
<그것과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좋은 교회 건물>을 주셨습니다.

그것도 **<신도시 중심부에 있는 교회>**이고,
<처음 건물의 반 값>도 안 주고 얻게 되었습니다!

그곳은 ‘20년 동안 교회로 썼던 곳’ 인데,
수리만 하면 깨끗하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.

- ◆ 선생이 20년 전에 그 지역에 갔을 때
섬리인들이 ‘너무 초라한 곳’ 에 있는 것을 보고,
“너희도 <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같은 곳>을 사게 해 주마.
열심히 해.” 하고 약속했던 곳입니다.

성자가 그 욕을 통해 약속하신 것입니다.

약속하고 20년 만에 해 졌습니다.

결국 말대로, 약속대로 됐습니다!

<삼위께서 그 욕을 통해 하신 말씀>을 이루시려고

경매가 들어지게 하시고

그 건물을 낙찰 받은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준다 했을 때
절대 받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.

- ◆ <인간의 생각>과 <삼위의 생각>은 너무 다릅니다.
고로 늘 삼위와 주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행해야 됩니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
<시대 하나님의 궁, 자연성전>을
‘최고 좋은 명당 지역, 월명동’ 에 자리 잡게 하셨듯이,
<섬리사 각 교회>도
‘환경 좋은 곳, 신부들이 쓰기 좋은 곳’ 에 자리 잡게 하십니다.

- ◆ 이 교회가 이 건물을 사기 전에는
두 교회가 합봉을 해서 예배 때마다 좁아서 불편했는데,

큰 교회로 이사 가고 나니 이제는 성전의 반도 못 채웁니다.

교회를 주셨으니, 이제는 ‘생명’ 으로 채워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구상대로 하니,
결국 두 교회 모두 ‘교회 건물’ 을 장만하게 됐습니다.

두 군데 모두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상황이 틀어지게 하시어
<예비하신 것>을 사게 됐습니다.

다 ‘하나님의 것’ 이고 ‘성령님의 것’ 이니
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앞장서서 하십니다.

- ◆ 성자는 가시면서, 섭리사에 성전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셨습니다.
그리고 계속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.
<많은 성전들>을 예비해 주고 가셨습니다.

고로 <섭리사에 주신 삼위일체의 것>을
절대 딴 데 뺏기지 않게 계속 기도하고 찾으며 준비했습니다.

때가 되니, 결국 <예비하신 성전들>을 사게 하셨습니다.
섭리사의 수십 교회가 이같이 ‘성전’ 을 얻었습니다.

- ◆ <성자>가 가신 후에는
<성령>께서 치맛자락이 땅에 닿을 날 없이
사명자들과 함께 ‘성전들’ 을 찾아다니셨습니다.

마치 ‘겨울에 하늘 신부들을 거리에 얹혀 놓은 심정’ 으로
성령은 “기다려라. 내가 찾아보마.” 하시며 찾아다니셨습니다.

그래서 급한 곳은 많이 해결되었습니다.

- ◆ 때가 되면 ‘삼위가 예비하신 것’ 을 주시니,
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.

기도할 때는 <당시>만 생각하지 말고,
<전에 약속했던 것>까지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.

다만, 사람은 약속하고 10년, 20년이 되면 잊어서 모르니
오직 하나님 뜻대로, 주 뜻대로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.

그래야 ‘자기 육적인 생각’ 으로 안 하게 됩니다.

- ◆ 어떤 교회는 전세 건물이 오래되어서
멋있고 아름다운 자가 누추한 달동네에 거하는 것같이 있기도 합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모시기에 누추합니다.

<기성>도 교회를 개척하여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기까지
수년이 걸리고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.

<섭리사>도 그러합니다. 꼭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.

하나님께서 경제 축복도 주시니,
모두 전심으로 뭉쳐서 뛰고 달리기 바랍니다.

그리고 <자기 교회>가 해결됐으면,
<다른 교회>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.

<말씀 마무리>

◎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<월명동 야심작에 세운 돌>이 무너져 깨졌을 때
<더 좋은 돌>로 쌓았듯이,
<섬리사에서 세운 자>가 무너져 깨지듯 하면,
<더 좋은 자들>을 세웁니다.

- ◆ 그러나 <월명동에 세운 돌>이 넘어졌어도
<위에 조금 깨진 것>은 ‘돌이 무너졌던 환난의 날’을 상징하니,
그냥 세웠습니다.

<섬리인들>도 그러합니다.

고로 상처가 있다고 흠잡지 말고,
화목하게 하나 되어 하기 바랍니다.

- ◆ 주의 사랑과 평강을 빕니다.

<기도 전 멘트>

◎ 설교자는 말씀 주제에 따라서 <중요한 말씀 핵심>을 뽑아서
3분 정도 불같이 전해 주고 <기도를 인도> 한다. - 부흥집회